

보도시점 2026. 1. 27.(화) 배포 시 배포 2026. 1. 27.(화)

주요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없이 유지

- 부가세 면세 종료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

1. 기사내용

1월 27일(화) 파이낸셜뉴스 「고추장·된장 가격도 인상...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더 커졌다」 기사에서 '25년 12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, 전월 대비 고추장(3.2%), 쌈장(2.6%), 된장(1.7%) 등 장류 가격이 상승하였고 2025년 말 '장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' 종료(일몰)가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

2.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① 정부 공식 통계 등에 따르면 장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- 국가데이터처 물가지수 및 한국소비자원 '참가격' 등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, 최근 장류 가격은 보합세입니다.

*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'25.12월, 전월대비) : 고추장(△1.3%), 된장(△4.4%)

aT KAMIS 조사('25.12월, 전월대비) : 고추장(△0.5%), 된장(8.5%)

참가격 조사('25.12월, 전월대비) : 고추장(△5.5%), 된장(5.6%), 쌈장(△0.6%)

- 기사에서 인용된 수치와의 차이는 기관별 조사 지역*, 조사 시점, 유통업체별(대형마트, 슈퍼마켓 등) 할인행사 종료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.

*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(기사인용) : 서울.경기 등 수도권/CPI(국가데이터처) 등 : 전국

- 따라서 일부 품목의 일시적 변동이 전체 장류 시장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② 주요 장류 제조기업의 출고가에는 변동이 없으며, 부가가치세 면세 종료와 가격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.

- 한국장류협동조합 및 주요 기업 확인 결과, 현재 장류 제조업체의 출고가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면세 종료가 즉각적인 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따라서 부가세 과세 전환(면세 종료)이 소비자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분석은 업계의 원가 구조와 실제 출고가 동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.

③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
- 정부는 주요 장류 제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, 유통 단계에서 부당한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장류 등 필수 식재료 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, 유통 구조 개선 및 수급 관리 대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미선 (044-201-2111)
		담당자	사무관	노규진 (044-201-2123)